

[論 文]

# 先史時代 韓國과 中國의 岩刻畫 比較 研究

任 世 權\*

## 차 례

- |                     |                 |
|---------------------|-----------------|
| I. 한국 암각화를 보는 시각    | 2. 인면 암각화       |
| II. 한·중 암각화의 특징과 내용 | 3. 동심원과 소형 바위구멍 |
| 1. 암각화의 특징          | 4. 사람 발자욱       |
| 2. 암각화의 내용          | 5. 말굽형 그림       |
| III. 두 지역 암각화의 비교   | IV. 맺음말         |
| 1. 동물 및 인물 암각화      |                 |

## I. 한국 암각화를 보는 시각

1970년대 초 이후 경남 울산지역과 경북 고령지역에서의 대형 암각화의 발견은 한국 선사문화 연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이들 암각화에 관한 연구는 그때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다시피 한 한국 미술사의 선사시대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연구성과들로 채워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의 사회, 생업경제, 신앙생활 등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한국 선사문화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에서의 암각화 발견과 연구는 한반도와 이웃한 지역에서의 암각화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암각화 자료들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선사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

\*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계적 보편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 선사문화와 시베리아 및 연해주 지역 선사문화와의 깊은 연관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미미하게 알려지고 있던 중국에서의 암각화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과만 단선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암각화 연구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북부지역 내이멍꾸(內蒙古) 인산(陰山)산맥 일대<sup>2)</sup>와 우란차뿌(烏蘭察布) 초원지대<sup>3)</sup>의 암각화들은 기법 면에서나 형태 및 내용에 있어서 한국의 암각화들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암각화는 이제 시베리아와 연해주 뿐 아니라 북부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함께 포함하는 동북 아시아 전 지역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암각화의 연구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이같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못한 중국 암각화 특히 한국 선사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북부지역의 암각화들과 한국 암각화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두 지역의 문화적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암각화 뿐만 아니라 암각화를 내놓은 동북아 전체의 선사문화의 흐름도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II. 한·중 암각화의 특징과 내용

### 1. 암각화의 특징

한국과 중국의 암각화를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중국의 암각화 분포를 보면 중원지역을 제외한 변방지역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내용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 특히 중국의 남부 즉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나 윈난성(雲南省), 궈저우성(貴州省) 등의 경우는 바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붉은 안료를 이용하여

1) 한국 암각화들이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과 직접 관련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명대, 황용훈 등의 초기 연구자들부터 최근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주장되어 오고 있다.

黃壽永·文明大, 『盤龜臺』, 동국대학교, 1984.

黃龍渾, 『東北亞細亞의 岩刻畫』, 민음사, 1987.

2) 蓋山林, 『陰山岩畫』, 北京: 文物出版社, 1989.

3) 蓋山林, 『烏蘭察布岩畫』, 北京: 文物出版社, 1989.

그런 것으로 내이명꾸에서 신장자치구에 이르는 북부지방이나 광둥성(廣東省)과 저장성(浙江省) 등의 동남부 해안지방의 새긴 그림들과는 제작기법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위에 묘사된 그림들을 일괄적으로 '岩畫'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말에는 새겨진 것과 그려진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새긴 그림이라 해도 북부지방의 것은 목축이나 사냥 등과 관련되는 동물이나 인물상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동남해안지방의 경우는 추상화된 선각화와 기하학적인 인면상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암각화는 모두 새겨진 것들이며 한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쳐 분포되어 있다.<sup>4)</sup>(그림 2) 지금까지 발견된 암각화 중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는 16곳의 유적들 중에서 경남의 울산군 천전리와 대곡리, 남해군 상주리 유적 그리고 전북 남원군 대곡리 유적을 제외한 14곳이 모두 경북 내륙에 분포하고 있다. 내용으로 보면 울산의 두 유적이 동물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고 남해 상주리 유적이 내용을 알기 어려운 추상 선각으로 되어 있다. 또 고인돌 개석에 새겨진 마제석검이나 작은 바위구멍과 동심원들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는 대부분이 人面을 추상화한 인면암각화들이다. 따라서 한국 암각화는 제작기법에 있어서나 내용 그리고 분포면에 있어서도 매우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암각화는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국의 내이명꾸에서 신장의 알타이산에 이르는 북부지방의 암각화들은 비교적 한국 암각화와 공통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이명꾸 지역의 암각화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 암각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산산맥의 랑산지구 암각화들과 우란차뿌 초원시대 암각화들은 한국과의 상호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제작기법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한국과 내이명꾸 지역의 암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동질성들은 두 지역 문화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청동기 문화의 흐름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 암각화들의 내용을 네가지로 나누어서 주로 중국 내이명꾸 지역의 암각화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리엔윈깡(連雲港) 등 장쑤성(江蘇省)의 일부 해안지역 암각화들도 언급될 것이다.

---

4)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의 분포상태 만으로 한국 암각화 전체의 분포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유적조사 실태를 감안할 때 영남지방에서의 암각화 유적이 호남지방이나 중부 기호지방보다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할 만 하다.

## 2. 암각화의 내용

앞 장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한국 암각화의 모든 종류를 망라한 것이 아니며 단지 중국과의 비교가 가능한 것들에 한정된 것이다. 즉 한국 암각화 중에서 비교적 독특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영일 인비리나 여수 오림동 등지의 고인돌 개석상의 마제석 검과 석촉 등을 새긴 것들, 그리고 남해 상주리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추상선각 등은 다룰 수 없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 중국에서도 분포되고 있는 것들이며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따로 따로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각종의 내용들이 한 암면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과 중국 특히 내이명꾸 지역에서의 암각화 문화가 상호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하겠다. 두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는 암각화들은 대체로 다음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동물과 인물을 주로하는 사실적 암각화이다. 이 종류의 암각화는 울산의 대곡리와 천전리 두 곳을 들 수 있으며 아직 다른 곳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이 두 곳의 암각화는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임은 물론 규모면에서도 최대의 것으로서 한국 암각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포 지역이나 유적의 수에 있어서 다음에 언급할 인면 암각화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새김법이나 형태적 특징에서 이 암각화들은 중국 북부지역의 암각화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두 지역간의 문화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인면(人面)을 나타낸 추상적 암각화이다. 이 유형의 암각화는 한국에서 발견된 암각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령 양전리 암각화<sup>5)</sup>를 대표로 하는 이 인면 암각화는 영일군 흥해읍 칠포리<sup>6)</sup>의 같은 유형 암각화군을 비롯하여 고령 안화리, 영천 보성리<sup>7)</sup>, 영주 가흥동<sup>8)</sup>, 남원 대곡리<sup>9)</sup>, 경주 석장동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그 형태가 방패와 비슷하여 방패형으로 불리기도 하며<sup>10)</sup> 또 청동검의 손잡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검파형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1)</sup>. 그러나 뒤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구성요소에서 모두 고령 양전리의

5) 李殷昌, 「高靈良田洞岩畫調查略報」, 『考古美術』 112, 韓國美術史學會, 1971.

6) 이하우·한형철, 「七浦里岩刻畫群 調查報告」, 『古城』 2, 浦項製鐵古文化研究會, 1990.

7) 송화섭, 「韓半島 先史時代 幾何文岩刻畫의 類型과 性格」, 『先史와 古代』 5, 韓國古代學會, 1993, pp. 113~145.

8) 張明洙, 「榮州 可興洞岩刻畫와 防牌文岩刻畫의 性格 考察」,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9) 송화섭, 앞 논문.

10) 張明洙, 앞 논문.

암각화와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 인면(人面) 암각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발견된 석장동 암각화에서는 고령 양전리 유형의 인면과 함께 밑으로 처진 물방울같은 또 다른 형태의 인면 암각화가 새겨져 있으며 같은 암면에는 이 외에도 꽃 모양의 암각화, 사람 발자욱 암각화 등이 서로 어울려 있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는 말굽형 암각화이다. 이 암각화는 안동군 임하면 수곡리에서 유일하게 보고되어 있다.<sup>12)</sup> 사람 발자욱, 작은 원형 홈으로 이루어진 옷판형 도형, 새 도형 등이 함께 어울려진 이 말굽형 암각화는 같은 암면의 다른 그림 요소들과 시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크게 같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이 말굽형 암각화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여성의 성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말굽형 도형 내부에 직선이 들어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 상태로 추정된다.<sup>13)</sup> 이 종류의 암각화는 중국 내이명꾸 우관차뿌 초원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sup>14)</sup> 두 지역의 문화적 연관성이 매우 긴밀함을 시사해주고 있기도 하다.

넷째는 원과 기하학적 곡선을 주로한 기하학무늬 암각화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무늬는 대표적인 것으로 울산 천전리 암각화를 들 수 있는데 면각 동물상의 위에 덧새겨진 기하학적 무늬에는 가로 또는 세로로 연속된 다중 마름모형이나 지그재그선 또는 동심원 등이 갈기 수법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이들 중에서 내이명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는 원과 동심원 그리고 작은 원형홈으로 이루어진 암각화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심원과 원형 홈들로만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함안 도항리를 들 수 있다.

### Ⅲ. 두 지역 암각화의 비교

#### 1. 동물 및 인물 암각화

##### 1) 動物像

앞에서 살펴본대로 한국 선사 암각화에서 동물이 새겨진 경우는 울산의 대곡리와 천전리

11) 송화섭, 앞 논문.

12) 임세권, 「안동군 임하면 수곡리 한들마을 바위그림」, 『안동문화』 1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원, 1994, pp. 167~200.

13) 위 논문, pp. 185~187.

14) 盖山林, 『烏蘭察布岩畫』, 文物出版社, 1992.

뿐이다. 면각으로 묘사된 경우는 대곡리와 천전리 두 유적에 모두 있으며 선각의 경우는 대곡리에만 있다.<sup>15)</sup> 대곡리의 면각과 선각은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서로 중복된 부분으로 보아 면각법의 암각화 즉 면각화가 선각화보다 앞서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면각화와 선각화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면각화와 선각화가 문화적 동질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면각화와 선각화는 서로 겹쳐진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암면 전체를 볼 때 가능한 한 겹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면각화는 주로 암면 왼쪽과 중앙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암면의 오른쪽에는 수가 비교적 적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선각화는 이러한 면각화를 피해가면서 암면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어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 상태는 선각화가 가능한 한 먼저 새겨진 면각화를 훼손하지 않고 새기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는 양자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은 동물의 묘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면각화나 선각화 모두 측면묘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측면이면서도 두쌍의 다리와 한쌍의 귀를 묘사하고 있어 왜곡근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몸통의 윤곽에서 양자 모두 아랫배를 불룩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도 면각화와 선각화에서 다함께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이는 새끼를 뱀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묘사는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나 표범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랫배가 불러 새끼를 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암면 중심부 상단의 멧돼지이다. 이 멧돼지들은 세 마리로 모두 배가 불룩하게 그려졌는데 왼쪽의 것은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의 등 위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이 두 마리를 교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나 위에 타고 있는 것에 성기의 묘사가 없거나 아랫배의 형태로 보아 이들은 모두 암컷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을 교미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도 교미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림은 암면 우측 중간부분에 있는 두 마리의 동물이다. 이들은 앞의 멧돼지에 비해서 훨씬 교미지세에 가까우나 역시 생식기의

15) 여기서 사용하는 線刻과 面刻이라는 용어는 文明大의 선조오기(線彫啄法)와 모두조오기(全面彫啄法) 그리고 金元龍의 線畫와 影畫에 해당된다(黃壽永·文明大, 『盤龜臺』, 東國大學校博物館, 1984, p. 241.; 金元龍, 「蔚山盤龜臺岩刻畫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9, pp. 5~22) 또한 黃龍渾은 면각을 '모두파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黃龍渾, 「韓半島 先史時代 岩刻의 製作技術과 形式分類」, 『考古美術』 127.)

16) 임세권, 「우리나라 선사암각화의 연대에 관하여」,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서울: 高麗苑), p. 525.

표현이 없고 앞의 동물과 뒤의 동물이 모두 같은 종류의 동물로 보기 어렵다. 앞다리를 앞의 동물 등 위에 올려놓은 것은 사슴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앞에 있는 동물은 목이 없고 머리의 형태도 뒤의 동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새김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에 따라 면각법이나 선각법은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즉 압면 우측 상부의 큰 사슴은 머리와 긴 목은 면각으로 새겨졌는데 비해 몸통은 선각으로 새겨지고 있다. 이처럼 면각과 선각이 서로 섞여 처리된 것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압면 중심부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곳의 긴 고래는 머리에서 몸통 중간까지는 윤곽선 만으로 되었고, 몸통 하부에서 꼬리까지는 윤곽 내부를 모두 파낸 면각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것은 압면 좌측의 고래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단의 꼬리를 위로 두고 거꾸로 선 고래의 큰 꼬리는 면각으로 처리하였는데 반해 몸통은 여러줄의 굵은 세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고래의 복부 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면각의 경우도 먼저 굵은 윤곽선을 새긴 다음 그 내부를 쪼아내고 있는데 윤곽선은 선각에서와 마찬가지로 갈기수법을 이용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면각화와 선각화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새겨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전리에서는 면각화만 있으며 선각화는 보이지 않는다. 내용면에서도 대곡리에서는 많은 수의 고래를 비롯하여 거북 사슴 그리고 작은 크기의 동물 등 비교적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전리에서는 거의 사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김법에서도 갈기는 보이지 않고 점을 쪼으듯이 얇게 쪼아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한국의 동물 암각화들과 비교적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는 우란차뿌 초원과 인산산맥의 암각화들이다. 이 두 지역이 위치하는 내이멍꾸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는 시베리아 암각화들과 공통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동북쪽 끝의 따싱안링(大興安嶺) 지역에서부터 바이차허(白岔河) 지역, 그리고 중부에 해당되는 인산산맥 양쪽의 랑산 지역과 우란차뿌 지역, 또 서쪽으로 닝시아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와 붙어있는 쭈어쯔산 및 허란산(賀蘭山)지역과 아라산(阿拉善)지역 등에 암각화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따싱안링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새겨진 그림들로서 동물과 인물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다. 묘사법으로는 면각법과 선각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면각법은 선각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 두 종류는 울산 대곡리에서처럼 시간적인 선후를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란차뿌 유적에서의 선각화의 수는 극히 적다. 그러나 면각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각에 가까운 것이 많다. 즉 대부분의 동물들 몸체는 매우 가늘

게 처리하여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물들은 같은 종류끼리 여러 마리씩 떼를 지어 있는 것이 많고 수컷의 경우는 생식기를 길게 내뻗고 있는 것이 많다. 동물의 종류는 주로 양과 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새김법에 있어서는 얇게 쪼아판 것과 깊게 쪼아판 것 또는 갈아파기 수법을 이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암석의 상태나 그림의 종류에 따라 새김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내이명꾸에서의 동물 암각화들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생산의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기법에서 대표적 동물 암각화 유적인 울산 대곡리의 경우 새끼를 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이명꾸에서는 과장된 생식기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천전리의 동물 암각화 중에서 갈아파기 기법을 사용한 암면 중심부의 작은 동물들이나 암면 좌단 상부의 허리가 긴 동물들은 형태상으로 우란차뿌나 인산 지역의 동물들 중 몸통을 선각에 가깝도록 가늘게 묘사한 것들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과장된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그림 4, 5) 이러한 천전리 암각화와 내이명꾸 암각화 간의 유사성은 편년상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지만<sup>17)</sup> 이 두 지역의 암각화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2) 人物像

울산지방의 인물상들은 동물상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며 동물상에 비해 크기도 매우 작게 묘사되어 있다. 대곡리의 면각 인물상은 전신을 새긴 것이 11점 확인된다. 이 중 암면 좌측 하단의 두 팔과 다리를 수평으로 벌린 비교적 큰 인물상을 제외하면 소형 인물상은 모두 10점이다. 그 중 측면묘사가 5점, 정면묘사가 5점인데 측면으로 된 것은 대부분 성

17) 현재 천전리의 동물 암각화와 대곡리의 동물 암각화의 선후관계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대곡리의 면각과 선각 동물이 제작기법이나 내용상 차이점이 인정되면서도 면각이 선각의 윤곽선을 갈기 수법을 이용하여 새긴 후 내부를 판 것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도 새끼밴 형태를 취한 점 등 동질적 요소들이 보이고 있어 문화적으로 크게 떨어진 시기에 제작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천전리 면각 동물상들은 윤곽선을 돌린 후 내부를 파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몸체 내부를 얇게 쪼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식기를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는 등 대곡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천전리 면각 동물상 위로 겹쳐 새겨진 갈기 수법의 추상 선각화들이 새김법 상 대곡리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천전리 면각 동물상들은 대곡리의 면각 또는 선각 동물상들보다 더 오래전에 새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이명꾸의 면각이나 선각의 동물상들은 그 편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대곡리나 천전리의 동물상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를 앞으로 크게 내밀고 있으며 팔은 머리쪽에 대고 있는 것이 많다.(그림 6) 또한 측면으로 묘사했으면서도 팔과 다리는 각각 둘씩 묘사하고 있음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동물의 경우에서도 측면으로 묘사하였으면서도 앞뒷다리를 각각 둘씩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중심 암면의 왼쪽에 있는 독립된 小岩面에 새겨진 인물상 하나는 두팔로 긴 물체를 받쳐들고 입에 대고 있는 형상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1)

이와 같은 인물상들을 보면 대체로 적극적인 수렵이나 어로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을 가득 태운 배라든가 창을 맞은 고래 등이 있어서 이들은 어로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중국이나 시베리아 또는 북구의 암각화에서 볼 수 있는 활을 쏜다든지 창을 던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수렵이나 어로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면각으로 된 인물상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수렵이나 어로보다는 오히려 춤을 춘다든가 악기를 부는 것같은 祭儀와 관련된 歌舞의 형태가 중심이 되어 있다. 정면상의 경우는 모양이 일정치 않으나 性器의 묘사가 전혀 없고 두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작은 인물상들은 내이명꾸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이명꾸에서의 인물상에는 측면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두 정면상으로 새겨진 이 인물들은 대부분 성기를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으며 성기는 아래쪽으로 뻗어 있다. 이는 울산 대곡리의 것들이 정면상에서는 성기묘사가 없고 측면상에서 성기를 수평으로 뻗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천전리의 가면을 쓴 듯한 소형 정면 인물상들에서 아래로 뻗친 성기가 묘사되어 있는 점은 내이명꾸와 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과 함께 새겨진 그림들에서 내이명꾸적 요소를 찾기 어려우며 또 인물상 자체도 머리의 형태 등에서 내이명꾸의 것들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이 바로 내이명꾸와 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곡리 암각화 중심 암면의 좌측 하단에 비교적 크게 묘사된 특이한 인물상(그림 7-1)은 내이명꾸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인물상이 분포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인물상은 머리의 형태가 분명치 않으나 오른쪽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양 옆으로 뻗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다섯개씩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고 다른 인물상과는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기가 묘사되지 않았거나 가슴 부분이 오른쪽으로 약간 불룩한 것 등을 여성의 체형과 관련지어 여성으로 보기도 하지만<sup>18)</sup>

18) 황수영 · 문명대, 앞 책, p. 237.

반구대 면각 인물상 중에서 정면상으로 된 것은 모두 성기의 표현이 없으며 가슴 부분도 실제 여성으로 인식할 만큼 과장되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이 그림을 여성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인물상은 몽고 초원지대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것과 양식상 일치하며<sup>19)</sup>(그림 7-2) 닝시아의 허란산 유적이나 중국 내이명꾸(內蒙古) 우란차뿌 고원의 따얼한무밍안리엔허치(達爾罕茂明安聯合旗) 제1지점에 있는 것은 형태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0)</sup>(그림 8)

〈그림 7〉의 오른쪽에 있는 우란차뿌의 인물상은 팔 다리 몸체 등은 짧은 선으로 묘사하고 두 발은 안으로 향하여 오므렸고 성기가 길게 밑을 향하고 있으며 팔은 수평으로 쭉 뻗었는데 두 손은 다섯개의 손가락을 모두 펴고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하였다. 손은 전체 몸보다도 더 크게 보일 만큼 과장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형상의 인물상은 샤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샤만상은 시베리아 일대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sup>21)</sup>

위에서 본 것처럼 울산지방의 면각 인물상들은 수렵이나 어로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제의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곳에 함께 새겨진 사람을 실은 배들도 대체로 고래잡이와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으나 어로작업에서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배를 타고 제의를 올리는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이명꾸의 인물상들이 수렵이나 목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풍요의 기원에 대한 상징묘사로서 울산지방에서는 단지 성기의 과장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내이명꾸에서는 구체적인 성교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등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청동기시대 이후 농경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생활 환경과 수렵과 목축을 중심한 내이명꾸 지역의 생활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샤만상에서는 매우 닳은 형태로 묘사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앙적 측면에서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에 들어오기 이전 시베리아나 내이명꾸 등지에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인면 암각화

한국 암각화에서 인면 암각화를 말하자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 말할 수 있다. 하

19) 黃龍渾, 『동북아시아의 岩刻畫』(서울: 민음사, 1987), p. 211.

20) 盖山林, 『烏蘭察布岩畫』(北京: 文物出版社, 1989), p. 241과 p. 243의 圖 1181.

21) V. 디오세지·M. 호팔 최길성 역, 『시베리아의 샤머니즘』(민음사, 1988)

나는 울산 대곡리와 천전리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얼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마 윗부분을 직선으로 잘랐고 윤곽은 거의 밑으로 길게 늘어진 역삼각형에 가까운 것이다.(그림 9) 이와 함께 원형으로 묘사된 얼굴이 대곡리와 천전리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위의 것과 같은 시기에 새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얼굴들 특히 그중에서도 역삼각형의 윤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면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같은 암면에 새겨진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춤을 추는 형태의 인물상들이 보여주는 제의 모습과 관련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면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인면 암각화들은 고령 양전리 암각화의 발견<sup>22)</sup>에서부터 최근 경주 석장동 암각화의 발견<sup>23)</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형들이 등장한 바 있는 추상적 특징을 가진 인면들이다. 이들은 외형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대체로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을 양전리식 인면 암각화로 부르코자 한다. 이 유형을 양전리식으로 부르는 것은 양전리 암각화가 같은 유형으로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며 또 이 유형의 암각화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장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양전리 그림과 같은 형태 또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은 영일 칠포리, 영천 봉수리, 영주 가흥동, 고령 안화리, 남원 대곡리 등으로 한국의 선사 암각화 유적 중에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내이명꾸에서는 인면 암각들은 한국의 인면들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원형이나 각을 등글게 죽인 장방형의 내부에 눈과 입 등을 새기고 윤곽 외부에 태양광선 또는 머리털과 같은 형상의 짧은 선들을 새긴 특이한 인면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양전리식 암각화들에서 보이는 요소들과 공통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어 한국 인면 암각화들과 문화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 1) 한국 인면 암각화의 특징

고령 양전리 암각화의 인면상은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이 유적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이은창은 이를 일단 가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인물상의 형식화된 護符로 보았다.<sup>24)</sup> 김원룡은 둘레의 짧은 선을 목책으로 보아 전체 형태를 목책에 둘러싸인 聖域을 표시한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25)</sup> 황용훈은 그냥 기하학적 그림으로 언급하였으며<sup>26)</sup> 필자는 연해

22) 李殷昌, 「高靈良田洞岩畫發見略報」, 『考古美術』 112, 韓國美術史學會, 1971.

23) 보고서 미간. 1994년 봄 경주 동국대학교에 의해서 발견.

24) 李殷昌, 「高靈良田洞岩畫調查略報」, 『考古美術』 112, 韓國美術史學會, 1971.

25)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1, 同和出版社, 1970, p. 138.

26) 黃龍渾, 『東北아시아의 岩刻畫』, p. 228.

주 우수리강 연안의 인면상과 비교하여 연해주 지방의 영향을 받은 가면으로 추정하기도 했다.<sup>27)</sup> 최근 이와 유사한 그림의 유적이 다수 발견되면서 방패를 상징하는 그림<sup>28)</sup> 또는 동검 손잡이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보는 견해가 발표되기도 했다.<sup>29)</sup>

그러나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누어보면 이는 아무르-우수리강 연안의 얼굴이나 중국 내이명꾸 지역의 인면상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전리식 인면 암각화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첫째, 윤곽이 사다리꼴이다. 대체로 윗변이 아래보다 길고 양 측면의 선이 약간 호형을 이루며 안으로 휘어들어가 있어 엄밀하게 말해서 사다리꼴이라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크게 보아 상하로 긴 사다리꼴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윤곽선에서 외부를 향하여 짧은 단선을 방사상으로 새겼다. 이 방사상의 단선들은 외곽선 밑면까지 새긴 것은 없으며 가장 많이 새긴 것도 윗변과 양옆의 삼면에만 있다. 양 측면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전혀 없는 것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윤곽의 내부를 몇 개의 횡선으로 분할하였다. 횡선과 함께 종선을 그어 좌우로도 분할된 것과 종선으로만 분할된 것도 소수 있다. 각각의 분할된 공간에는 작은 원형 구멍을 2-3개 뚫으며 때로는 4개가 있는 것도 있다. 이는 그림의 크기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윤곽선 윗변에는 안쪽으로 반원형을 붙였는데 반원의 내부는 모두 파냈다. 반원형 양쪽을 사선을 그어 분할하고 그 안에 점을 찍거나 또는 원호를 따라 선을 그려 마치 눈처럼 만들기도 했다.

위의 특징들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윤곽선 외부에 방사상의 단선들이다. 이 선들은 경우에 따라서 밑변을 제외한 삼면에 있는 것이 있고 윗변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있으며 아주 없는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 유적의 암면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방사상 단선이 있고 없는 것이 형식을 구분해주는 요소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

---

27) 任世權, 「우리나라 선사암각화의 연대에 관하여」,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1984, p. 539.

28) 張明洙, 「榮州 可興洞岩刻畫와 防牌文岩刻畫의 性格 考察」,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論叢』, 1992.

29) 송화섭, 「韓半島 先史時代 幾何文岩刻畫의 類型과 性格」, 『先史와 古代』 5, 韓國古代學會, 1993.

서 제대로 모양을 갖춘 것은 이 단선들을 삼면에 모두 새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방사상 단선들을 새긴 유적으로는 양전리 유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선이 약하기는 하지만 보성리 유적도 들 수 있다. 또 남원 대곡리 유적은 윤곽선과 내부의 형태가 좀 특이한 점이 있으나 역시 삼면에 외부단선들을 모두 새긴 것이 있다.

다음은 내부 윗면에 붙은 'U'자형 무늬이다. 이 무늬도 역시 같은 유적에서도 역삼각형으로 처리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역삼각형의 윗변 즉 윤곽선의 윗변을 생략하여 윤곽선의 윗부분이 'V'자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것도 같은 유적 안에서 'U'자형과 역삼각형, 'V'자형 그리고 아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sup>30)</sup> 형식의 차이나 시기적 차이로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정식으로 형태를 모두 갖추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생략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윗변부분의 처리는 'U'자형이 기본적 형태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내부의 분할상태를 들 수 있다. 내부의 분할은 횡선을 2-4개 정도 그어서 내부 공간을 셋에서 다섯 정도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듯한데 칠포리에서는 다섯개의 선으로 내부를 6칸으로 나눈 것도 있다. 이것 역시 어떤 것은 두칸 또 어떤 것은 전혀 분할되지 않은 것도 있다. 칠포리 유적에는 윤곽 외부에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에도 아무 구획을 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점도 찍지 않으므로써 단순한 윤곽선만으로 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도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등에서는 세로선을 그어 내부를 가로선과 함께 격자로 분할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남원 대곡리에서는 가로선 없이 종선을 그어 좌우면만으로 분할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때 이 요소들의 있고 없는 것이나 몇 가지 변이 형태를 가지고 이 그림의 형식을 분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정식표현과 약식표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면상 암각화에서 다른 유적의 것과 달리 비교적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주 석장동 암각화의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설명한대로 머리 윗부분이 뾰족하고 밑으로 둥글넓적하게 퍼진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밑면을 제외한 위와 양 옆면에 방사상 단선을 새겼다. 또 삼각형 내부의 아래쪽을 가로선으로 분할하여 방형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윗쪽의 삼각형 공간에 점을 여러 개 배치하여 얼굴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30) 칠포리 유적에서 이 네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현재 경주에서만 발견되었는데 함께 새겨진 그림 중 양전리식 인면이 있으며 윤곽이 방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성에서는 양전리식의 인면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같은 계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면 암각화 유적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을 든다면 암각화가 새겨진 암면의 형태가 수직암벽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인면 암각화가 있는 대부분의 암면에는 인면상 외의 다른 암각화가 함께 새겨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인면상들이 독자적으로 한 암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암각화가 다른 종류의 암각화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 제작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단지 칠포리 유적의 일부에 여성기로 보이는 삼각형 또는 타원형 암각이 함께 있으며 경주 석장동 유적에 인면상들과 함께 꽃무늬 또는 발자욱 등의 암각화가 함께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유적들은 양전리식 인면은 소수를 차지하며 여성기형이나 또는 물방울 형태의 독특한 인면상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면 암각화 유적과 구별되고 있어서 이같은 현상이 연대적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인지 아직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 2) 내이명꾸 지역의 인면 암각화

내이명꾸에서의 인면 암각화는 인산산맥의 랑산(浪山) 지구와 쭈어쯔산(卓子山) 지구의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랑산이나 쭈어쯔산에서의 인면상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은 원형이나 네모서리를 죽인 장방형 내에 눈 코 입 등을 새겨 넣었는데 윤곽 외부로 태양광선과 같은 짧은 사선들을 새긴 것이 많다.(그림 11) 둘레에 짧은 방사선을 새긴 경우는 원형과 장방형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윗부분에만 새기거나 또는 아래를 제외한 세 방향에 새기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눈과 입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머리허투꺼우의 방형 인면은 내부가 복잡하여 분명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고령 양전리의 인면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머리허투꺼우 3지점의 타원형 인면상은 삼방향에 비교적 긴 단선을 새기었고 상하로 긴 얼굴의 중앙부에 횡선 둘을 그어 얼굴을 3분하였다. 윗 칸에는 두 개의 점을 새겨 눈을 표시하였고 아랫 칸에 한 개의 점을 새겨 입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형태도 둘레의 광선과 같은 머리칼의 묘사나 횡선에 의한 내부 분할 등은 양전리식 인면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 둘레에 단사선을 새긴 인면상은 중국에서는 태양형 얼굴로 분류하고 있다.

인산지역의 인면상 중 주목을 끄는 것은 경주 석장리에서 볼 수 있는 물방울 형태의 인면

상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의 인면은 머리허투꺼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며 우쓰타이꺼우(烏斯台溝) 아꾸꺼우(阿貴溝) 그리고 쭈어쯔산 등지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쭈어쯔산 제7 지점의 인면상은 둘레에 단선의 머리칼을 새긴 물방울형의 인면과 그 밑으로 몸체를 묘사한 듯한 방형을 연결시킨 것이 있는데 이는 석장동 물방울형 인면상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3) 한국·내이명꾸 인면상의 관계와 상징성

위와 같은 중국 내이명꾸의 인면상들은 각각의 형식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분류되거나 편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후관계 등 연대문제가 분명치 않다. 이들은 한국의 인면상들에 비해서 형태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사람 얼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어서 그것이 인면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인면상들은 대체로 방형 내지는 윗쪽이 넓은 사다리꼴을 하고 있으며 내부의 도형들이 정확하게 얼굴의 눈 코 입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인면상들은 초기에 토지의 분할과 관련된 도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으며 현재도 방패나 칼 손잡이와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도 행하여지고 있다.

여러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경우는 형태 자체가 비교적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형태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복잡하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형태를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내이명꾸 지역의 인면들과 비교하면 많은 요소들에서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윤곽 주위의 머리칼로 보이는 단사선들의 묘사가 많고, 둘째는 내부를 여러 개의 횡선으로 분할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셋째는 내부의 이마 부분에 'U' 또는 'V'자형의 도형을 새긴 것이 있고, 넷째는 방형의 윤곽선이 자주 보인다는 점 등이다. 비록 내이명꾸의 인면상들이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 인면상을 통해서 위와 같이 한국 인면상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지역의 암각화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면상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앞에 설명한 내이명꾸 인산산맥 지구의 량산 유적과 닝시야의 허란산 유적의 인면상들도 윤곽 외부에 방사상 단선을 묘사한 태양형 인면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국의 인면상들은 대체로 동심원과 함께 새겨져 있으며 동물그림들과 섞여 있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은 독자

적으로 암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면상들과 통한다. 따라서 이들 인면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동물 또는 인물 암각화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새겨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암각화를 만드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새기는 것 자체가 제의의 한 과정이며 신성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성한 행위로서 새겨진 암각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제의를 담당하는 샤먼 자신이나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수렵이나 어로의 대상물을 많이 새기거나 수렵 어로의 도구 그리고 행위자체를 새김으로써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런 유로는 울산의 대곡리나 천전리 암각화를 들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새기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신의 형상을 새길 것이며 양전리식 암각화는 바로 그렇게 새겨진 신상일 것이다. 신의 형상은 신성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암각들을 한 바위면에 새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듯 하다. 이는 내이명꾸나 한국의 경우에서 두루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인면 암각화 들레의 방사상 단선들은 태양광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샤먼이 신상을 만드는 것은 자연물을 인격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볼 때 위의 인면들은 태양신이므로 태양의 광선과 사람의 얼굴을 함께 합쳐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또한 내이명꾸나 양전리 암각화 등에서는 인면상과 함께 동심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심원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태양과 태양신이 함께 같은 암면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심원과 소형 바위구멍

우리나라 암각화 유적에서 동심원과 바위구멍은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동심원은 천전리 유적의 선각그림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고령 양전리 유적에서는 인면 암각화, 함안 도항리 유적에서는 바위구멍들과 함께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서 양전리와 도항리의 동심원이 중국의 암각화에서 나타나는 인면암각화와 작은 바위구멍들과 함께 새겨져 있어서 비교된다. 고령 양전리의 동심원은 모두 중심점을 가진 3중 또는 4중 원이며 중심부 위쪽에 있는 것이 가장 뚜렷하고 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다. 이 양전리 유적은 人面岩刻과 동심원으로만 이루어진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유적으로서 역시 동심원은 태양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특히 뒤에 따로 언급할 것처럼 함께 새겨진 인면

31) 盖山林, 「贺兰山巫師岩畫初探」, 『寧夏社會科學』總第52期, 1992-3, p. 6.

암각이 태양신을 상징한다고 볼 때 태양과 태양신이 함께 새겨진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중국의 송야오량(宋耀良)은 동심원이 상징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태양의 변형된 모습이라 하였고, 둘째는 생식숭배를 의미하는 부호로 생각했다. 셋째로 그는 동심원을 宇宙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별로 보이는 작은 바위구멍들과 함께 있는 동심원들을 특별히 그렇게 본 것이다.<sup>32)</sup> 이와 같은 동심원의 상징성은 한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咸安 道項里 유적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도항리 유적은 고인들의 개석에 새겨진 것으로 작은 바위구멍들이 여러 개의 동심원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구멍들은 동심원의 중심점을 이루면서 또 동심원들과 겹치지 않고 전체 그림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일시키고 있다.(그림 12) 바위구멍들은 아주 큰 경우 지름 5~6cm 깊이 2.5cm 정도이며 작은 것은 지름 2~3cm 정도이다. 구멍들은 무질서한 듯이 보이지만 큰 동심원의 주위에는 수가 적고 작은 동심원의 주위나 또는 동심원이 없는 곳에는 매우 많은 구멍들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심의 가장 큰 동심원 왼쪽으로 있는 구멍들은 마치 원을 그리듯 모여 있으며 암면 윗부분의 구멍들은 작은 것과 큰 것이 어울어져 마치 별자리를 묘사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동심원을 태양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유적의 동심원들은 태양이라기 보다는 밤 하늘의 별들 가운데서 아주 밝은 별들을 나타낸 듯하다. 동심원들도 작은 것과 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작은 동심원들은 주위의 작은 바위구멍들이 동심원들과 약간씩 겹쳐서 있고 큰 동심원들은 철저히 서로 피하여 새겨진 것은 밝은 별의 경우 그 밝기로 인하여 주위의 별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바위구멍과 동심원들은 처음부터 고인돌 개석에 새겨진 것이었는지 아니면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를 채석하여 고인돌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것은 주변의 그림들이 바위면이 깨짐에 따라 파손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이 그림들은 본래는 훨씬 더 넓은 바위면에 넓게 새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천체도를 나타낸 암각화는 중국의 리앤윈강(連雲港)유적(그림 14)이나 인산산맥의 한우라 산(그림 15)에서도 볼 수 있다. 인산의 바이지꺼우(白齊溝) 한우라(韓烏拉) 산의 제 3지점에 있는 별그림은 지표와 같은 높이의 암반 위에 수 십개의 작은 바위구멍들이 파여져 있고 어떤 것은 작은 바위구멍들과 함께 작은 구멍들을 속에 가진 큰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

32) 宋耀良, 『中國史前神格人面岩畫』, pp. 99~103.

는 것도 있다. 보고자들은 이것을 별그림 또는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星神圖라고 하였다.<sup>33)</sup>

이들은 도항리의 것이 동심원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다. 또 리엔원강의 그림은 길이 6m나 되는 큰 바위면에 방사선형 광선을 새긴 태양과 함께 은하수를 표현한 듯한 느낌을 준다.<sup>34)</sup> 이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지식묘 개석에 새겨져 있는 바위구멍들 가운데 대형의 구멍들이 서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다. 최근 칠포리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칠포리 2구역의 도로변 지식묘 개석상 암각화 근처에 있는 한 지식묘 개석 위에는 큰 바위구멍들이 가득 새겨지고 이들 바위구멍들이 서로 직선으로 연결된 것이 발견된 바 있다.<sup>35)</sup> 또 안동군 예안면 계곡동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바위구멍들이 지식묘로 보이는 개석 위에서 발견되었다.<sup>36)</sup>(그림 13) 이들은 그 형태의 특성상 별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도항리 유적은 우리나라 암각화 중 천체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나 별에 대한 관찰은 농경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순조로운 농경활동과 많은 생산을 위해서 태양과 함께 별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을 것이다.

#### 4. 사람 발자욱

수곡리 유적에 1점과 경주 석장동 유적에 3점이 있다.<sup>37)</sup> 길이 15cm 정도의 작은 것으로 다섯개의 발가락까지 완전하게 새겨져 있다. 수곡리 유적의 것은 발가락이 거의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앞에는 지름 7cm 깊이 4cm 정도의 바위구멍이 하나 있고 그 동쪽으로 옷판 그림이 있다. 암각화에 손바닥이 나오는 것은 외국의 경우 드물지 않으나 발자욱이 나오는 것은 드문 편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인산이나 우란차뿌에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드물다.

인산 지역의 우라트허우치 제21지점의 그림 중에서 제2조의 그림(그림 16)은 여러 개의 사람 발자욱과 함께 얼굴, 꽃 모양 등의 그림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우란차뿌에서는 말굽형그림과 발자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17) 이로 보아 수곡리 유적과 금장대 유적이

33) 陰山岩畫 70쪽, 71쪽의 圖 240와 241, 236쪽 圖 932.

34) Jiang Zhenming, *TIMELESS HISTORY-THE ROCK ART OF CHINA* (Beijing, Newworld Press, 1991) pp. 69~70.

35) 한형철·이하우, 앞 논문, p. 57.

36) 任世權, 「안동 선사문화의 성격」, 『安東文化의 再認識』 (安東文化硏究會, 1986), pp. 168~169.

37) 이 발자욱 암각과는 약간 구별되는 또 다른 유형의 발자욱 암각이 영일군 장기면 학계리의 고인돌 위에 새겨진 예가 있는데 이는 마치 구두자욱같은 형태로서 여기서 말하는 발가락까지 완전히 새겨진 발자욱과는 구별된다.(裴勇一·金鎔佑, 『영일만 지역 고인돌 문화 연구』, 영일문화원, 1994, pp. 145~147.)

같은 시기의 것임은 물론 인산이나 우란차뿌 지역의 암각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바위에 새겨진 발자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詩經』이나 『史記』 또 『竹書紀年』 등에 실려 있다. 즉 周의 始祖인 后稷의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욱을 밟은 후 후직을 낳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宋書』 符瑞志에 太昊의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욱을 밟고 태호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의 발자욱을 바위에 새기는 것이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기를 원할 때 밟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중국의 예가 한국의 발자욱 그림과 직접적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고 해도 한국의 암각화가 생식숭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체로 같은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 5. 말굽형 그림<sup>1)</sup>

지금까지 말굽형 그림이 나온 암각화 유적은 안동 수곡리 유적이 유일하다.(그림 18) 이들은 그 생김새가 마치 말굽이나 동물의 발자욱과 비슷하기 때문에 필자는 편의상 말굽형 그림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그림이 많이 알려진 중국에서도 이는 말굽 또는 동물발자욱 등으로 표현되고 또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말굽형 그림들은 실제로 말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의 발자욱을 묘사한 것인가? 말굽형 그림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우란차뿌 암각화를 조사한 盖山林(盖山林)은 선사시대 암각화에 동물의 발자욱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발자욱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수렵과 목축을 주로 하던 당시 사람들은 동물의 발자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으며 동물 발자욱을 잘 관찰하여 동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파악하였는데 이것은 수렵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숭배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sup>39)</sup>

우란차뿌 고원지대에서 나타나는 말굽형 그림(그림 19)들은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물들 또는 수렵을 하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물과 사람의 형상이 어느 정도 비례를 지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서 말굽형 그림들은 대부분 동물이나 사람의 크기보다도 더 크게 묘사된 것이 많아 이들 동물과 발자욱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말굽형 그림들이 정말 동물 발

38) 陳兆復, 『앞 책』, pp. 336~337.

39) 盖山林, 『烏蘭察布岩畫』, p. 300.

자욱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말굽형 그림에 대해서 동물의 발자욱이라는 견해 이외에 여성의 성기라는 견해도 있다. 오크라드니코프는

마땅히 주의해야할 이 발자욱 그림의 뾰족한 형태는 여성의 생식기와 방불하다. 어떤 그림상에서든 ……발자욱을 중간에서 둘로 나눈……짧은 수직선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남자의 성행위 개시를 나타낸다.

고 하여 발자욱 그림을 여성의 성기로 보고 있다.<sup>40)</sup>

또 송야오량(宋耀良)도 우란차뿌 지역에 많은 말굽형 그림들을 생식부호의 하나라고 보고 그와 함께 있는 동심원들도 역시 같은 생식부호로 보았다. 이 말굽형 그림은 농업목축시기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가축의 번식을 희망하여 새긴 것이라고 추정했다.<sup>41)</sup>

선사인들의 신앙의 대상은 대부분 생산의 풍요를 가져오는 상징적 존재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다. 그 상징적 존재가 암각화 또는 다른 예술의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 대체로 수렵의 대상물인 동물이나 성적 상징을 과장 묘사한 남자나 여자였다. 우란차뿌 고원의 경우도 대체로 남근을 과장하여 묘사한 인물상이거나 동물상들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성교의 모습을 새긴 예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이들과 함께 새겨진 말굽형 그림은 남근과 상대적인 존재로서 여근 즉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곡동의 말굽형 그림을 형태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한쪽이 벌어진 원형의 내부에 'Λ'형 그림을 그린 것이고 또 하나는 앞의 형태를 한 그림 내부 중심에 'I'형으로 직선을 그린 것이다.(그림 20) 필자는 위에 언급한 오크라드니코프의 견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전자를 여성의 성기로, 그리고 후자는 거기에 남근이 삽입된 형태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내이몽꾸의 인산산맥에 분포된 하나의 인물상을 들 수 있다.(그림 21-3) 팔을 반쯤 쳐들고 다리를 벌린 이 인물상은 크게 과장된 성기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성기는 주머니처럼 위로 입을 벌린 타원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까이산린은 이를 남근과 고환이 함께 묘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42)</sup>

40) 奧克拉德尼科夫, 「加蘭加什河岩畫」, 『文物考古參考資料』 제4기, 內蒙古文物工作隊編印, (陳兆復, 『中國岩畫發現史』, p. 342에서 재인용)

41) 宋耀良, 『中國史前神格人面岩畫』, pp. 99~103.

42) 蓋山林, 「我國生殖崇拜岩畫」, 『美術史論』 1990年 第1期, p. 67.

그러나 같은 인산 지역이나 또 우란차뿌 고원의 암각화에서는 고환을 묘사하는 경우 성기의 양쪽에 점을 찍어 묘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43)</sup>(그림 21-1) 따라서 이는 고환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성기와 결합된 남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같은 우란차뿌 유적에서 보이는 여성 그림에 나타난 성기의 묘사(그림 21-2), 그리고 말굽형 그림 중에서 내부를 향해서 들어오는 물체가 묘사된 것(그림 21-4) 등과도 비교된다.

또한 그림 21-3의 성기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그것은 우란차뿌 초원이나 수곡동에서 보는 것과같은 말굽형 그림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말굽형 그림이 바로 여성의 성기이거나 또는 남근을 받아들인 여성의 성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곡동의 말굽형 그림도 여성 성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전리 유적의 마름모형을 여성 성기로 볼 수 있고 또 최근 영일군 칠포리에서 발견된 암각화에서도 여성 성기형 그림이 다량 발견된 예로 보아 암각화에 여성 성기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sup>44)</sup>

#### IV. 맺음 말

앞에서 우리는 한국 선사 암각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 중국 북부의 내이멍꾸 자치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내이멍꾸 자치구의 암각화들 중 동북부 끝의 따썩안링 지구나 서쪽 끝의 알타이 지구 등에서는 안료를 이용해 그린 그림들이 약간 섞여 있으나 전체적으로 새긴 그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이멍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우란차뿌·랑산·쭈어쓰산 등지의 암각화들은 그린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새긴 그림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제작 기법상 한국 암각화들과 공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의 내용에서 인물상, 동물상, 얼굴그림, 말굽형 그림 등이 한국과 내이멍꾸에서 공통되게 나타난다. 내이멍꾸의 경우 인물상 동물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고 얼굴그림은 랑산 지구나 쭈어쓰산 지구 등의 내이멍꾸 중서부 지역에, 그리고 말굽형그림

43) 투이라마야오 33지점의 춤추는 남자가 대표적이다. (盖山林, 『烏蘭察布岩畫』, p.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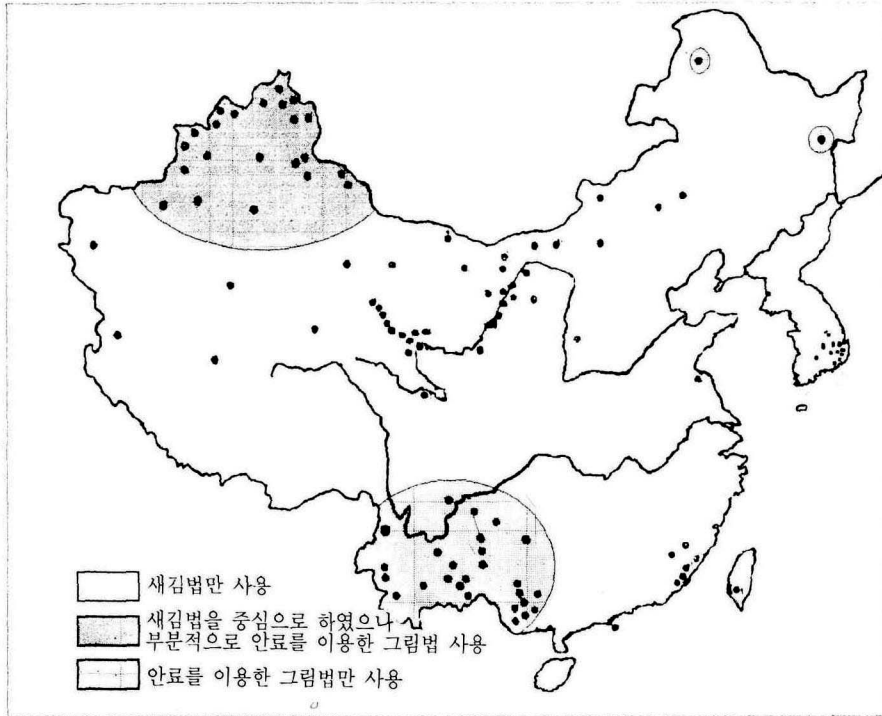
44) 경북 영일군 칠포리 해수욕장 뒷편 야산의 암각화군 중에서 최근 새로 발견된 암각의 도형 가운데는 여성 성기와 흡사한 도형들이 많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송화섭, 『韓半島 先史時代 幾何文岩刻畫의 類型과 性格』, 『先史와 古代』 5, 韓國古代學會, 1993, p. 116.)

은 인산 북부의 우란차뿌 초원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이멍꾸 암각화 중에서도 특히 우란차뿌 지역과 랑산 지역의 암각화들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한국의 선사 암각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것들로서 주목된다. 즉 우란차뿌 지역의 말굽형 암각화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림이 안동군 수곡리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랑산지구나 쭈어쓰산지구의 얼굴그림들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한국의 고령 양전리식 인면암각화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도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면암각화들은 경주 석장동 유적을 제외하면 인면만 단독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암각화와 구별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랑산지구에서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인면상이 다른 암각화에 비해서 특별히 신성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들레의 광선 형태의 단선 등으로 미루어 태양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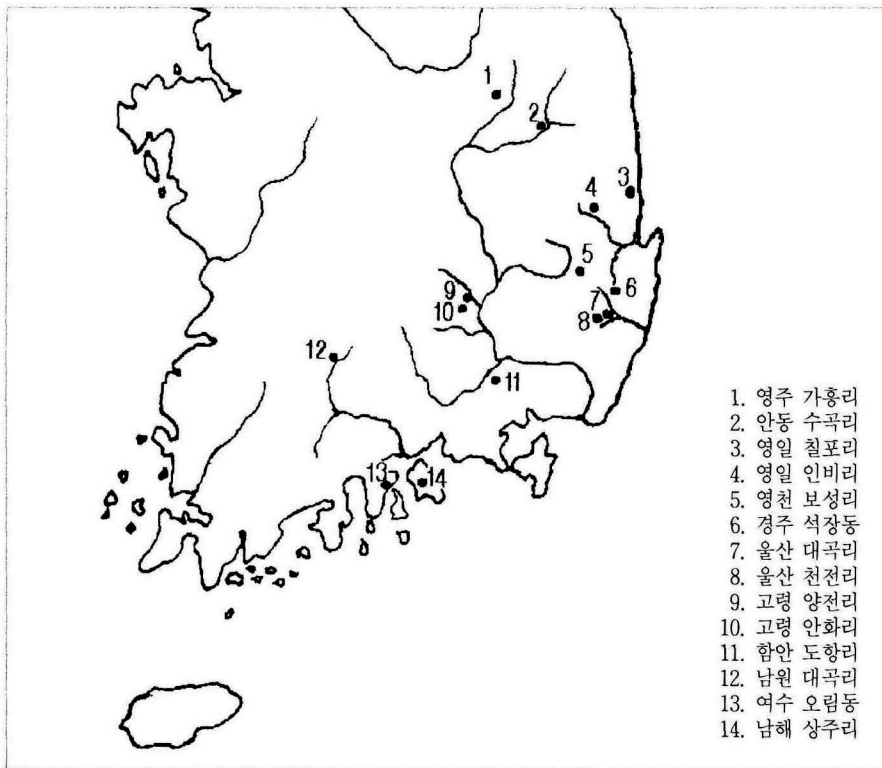
인물상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울주 대곡리 좌측 최하단에 있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옆으로 활짝 벌리고 있는 인물상이다. 이 그림은 우란차뿌나 인산지구 또는 쭈어쓰산과 인접한 닝시아의 허란산 유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시베리아에서 사만의 형태로 알려진 것과 통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발견된 경주 석장동 유적의 인면이나 꽃 모양, 발자욱 등이 그대로 랑산지구의 암각화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음도 이 두 지역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사시대 암각화들은 시베리아의 여러 암각화 유적들 특히 바이칼호를 중심으로한 톱강, 레나강 상류 등과 동쪽으로 연해주 일대의 유적들과 비교되어 왔으며 특히 양전리식의 얼굴그림에서 연해주 지역의 아무르강 유역 얼굴그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 지역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온 바 있다.<sup>45)</sup> 물론 이 두 지역의 그림 또는 문화적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암각화의 다양한 종류들과 함께 나타나는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내이멍꾸 지역 특히 우란차뿌와 랑산지구의 암각화들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선사 암각화의 연구에서 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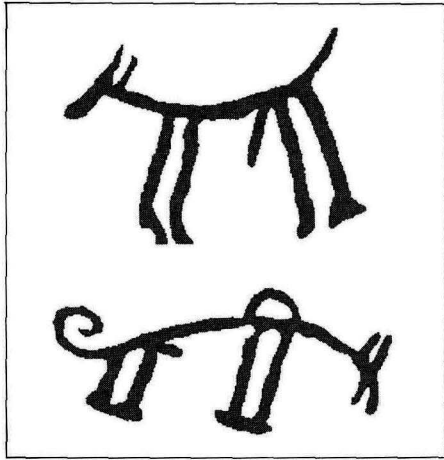
45) 황수영·문명대, 『盤龜臺』, p. 244.



<그림 1> 중국과 한국의 암각화 분포



<그림 2> 한국의 암각화 분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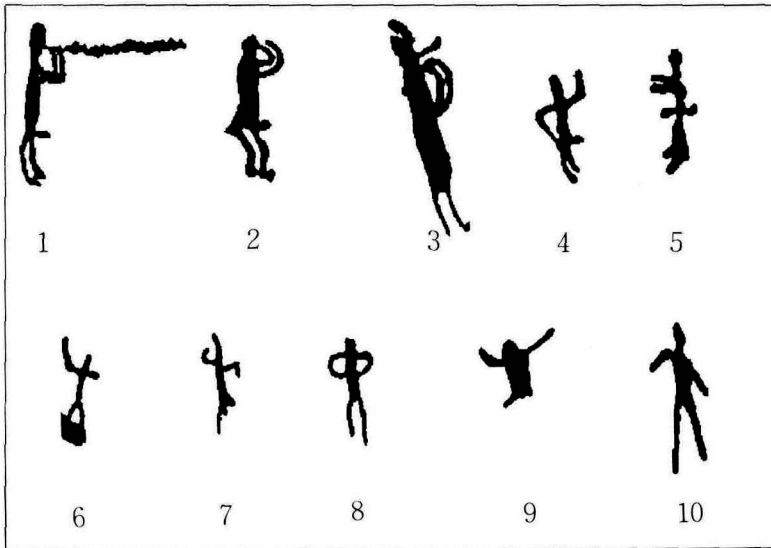
<그림 3> 우란차뿌 지역의 동물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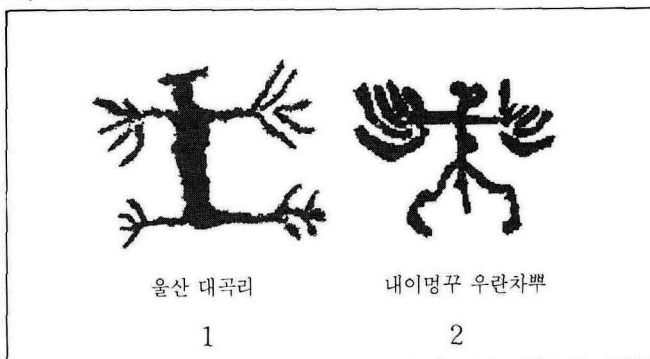
<그림 4> 생식기를 묘사한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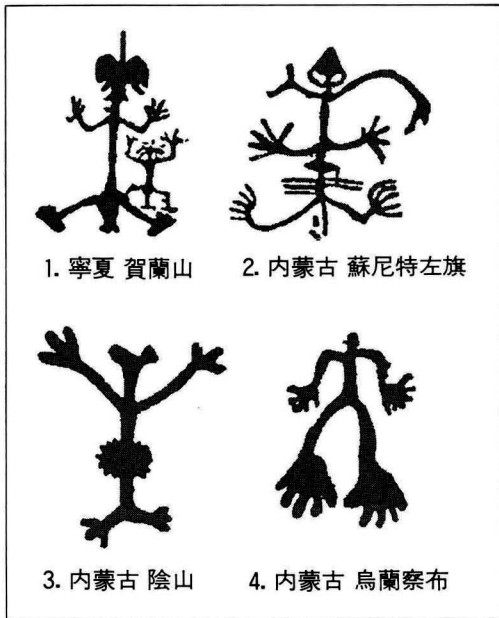
<그림 5> 천전리의 몸체가 긴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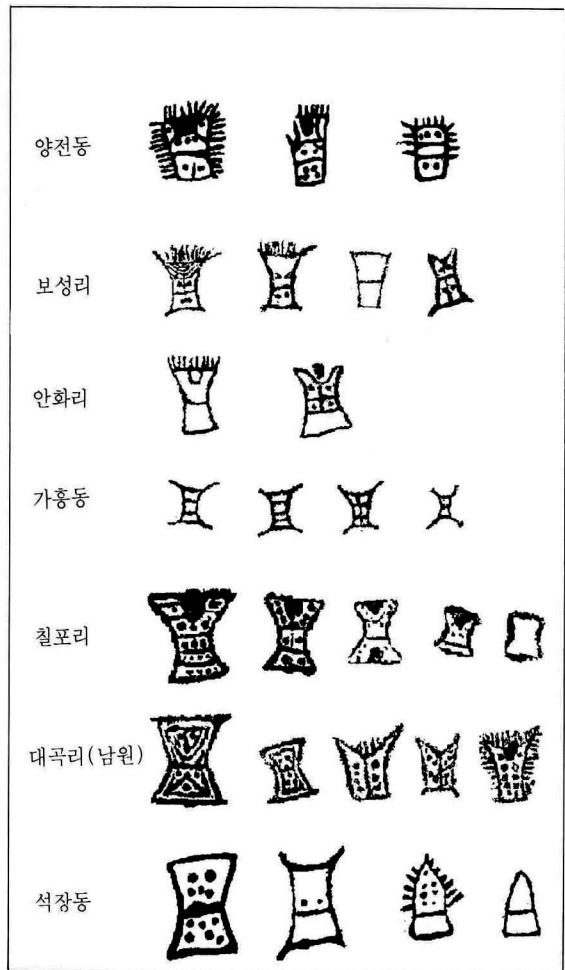
<그림 6> 울산 대곡리의 소형 인물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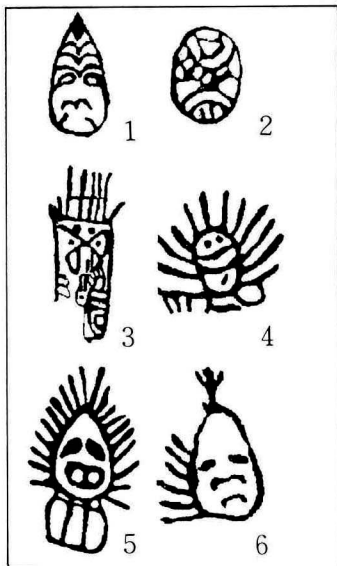
<그림 7> 대곡리와 우란차뿌 샤만상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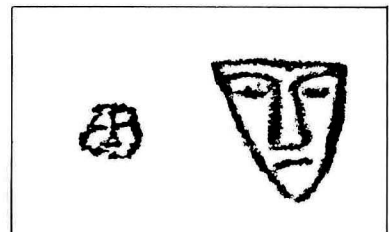
<그림 8> 내이멍꾸와 닝시아의 샤만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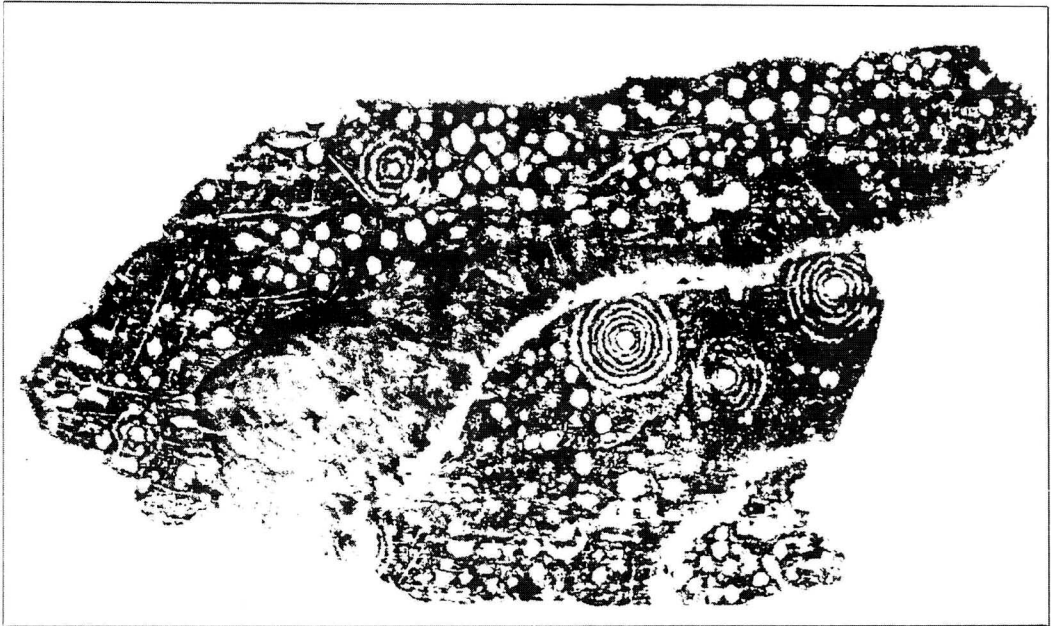
<그림 10> 인면 암각화의 여러종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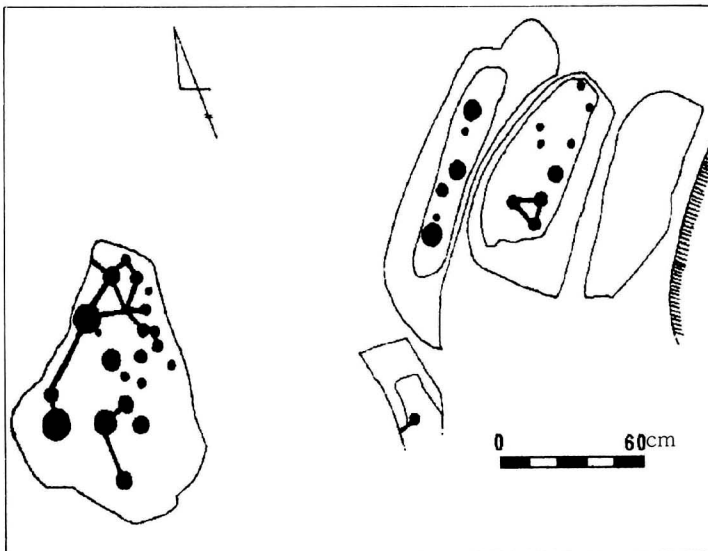
<그림 11> 허란산과 머리허투꺼우의 인면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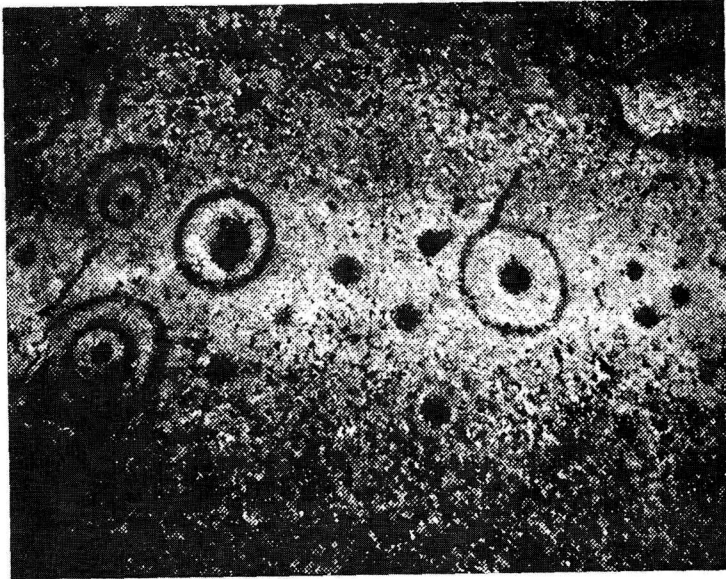
<그림 9> 대곡리의 선각 인면(비례는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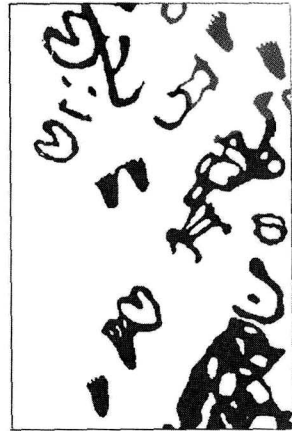
<그림 12> 함안 도항리의 동심원과 작은 바위구멍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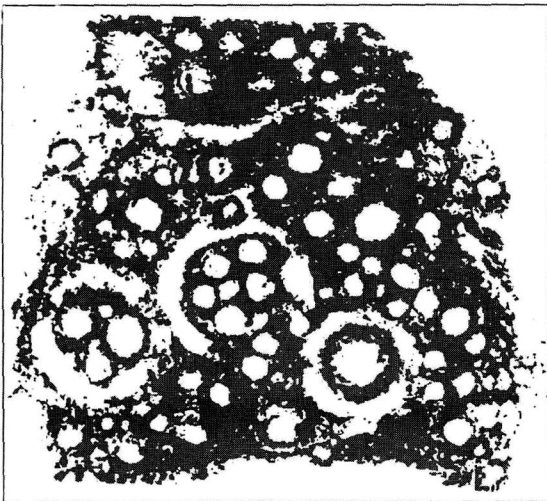
<그림 13> 안동 계곡동 고인돌 위의 바위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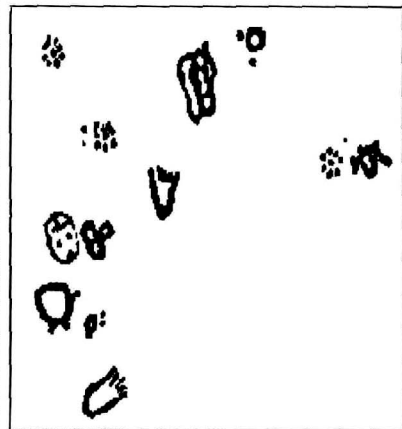
<그림 14> 리앤원깡의 별 그림 암각화



<그림 16> 우라트허우치의 발자욱과 꽃모양 그림



<그림 15> 인산산맥 한우라산의 별그림 암각화



<그림 17> 우란차뿌의 발자욱과 말굽형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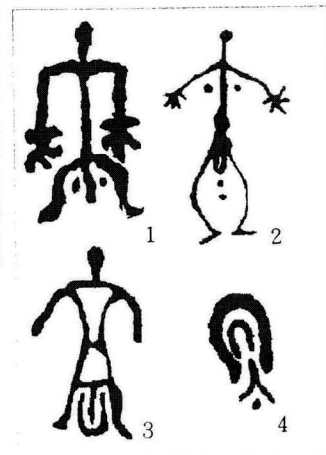
〈그림 18〉 안동군 수곡리의 말굽형 암각화



〈그림 19〉 우란참 지방의 말굽형 그림



〈그림 20〉 수곡리 말굽형 도형의 종류



〈그림 21〉 우란참 지역의 인물상과 성기의 묘사